

두산
인문극장
2024



4.30-5.18

권리

더 라스트 리턴
The Last Return

by Sonya Kelly

권리 RIGHTS

두산 인문극장 2024

권리

인권에 대한 일반적인 전제는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에게 결부되거나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당연한 것 같지만, 권리는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다. 권리는 어디서 왔는가?

권리는 인간과 다른 존재들이 원래 소유했던 것일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로부터 양도받은 것일까? 만일 권리가 거래되거나 누군가로부터 양도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동물이나 로봇, 또는 바위 같은 비인간 존재들에게 권리를 양도하지 못할 이유는 무엇일까?

실제로는 권리가 없는 존재들이 권리를 갖는 방향으로 역사는 흘렀다. 고대 그리스에서 권리를 가진 사람들은 남자 시민이었다. 오랜 시간이 흘러 노예가 해방되고 여성의 권리가 회복되었다. 소수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시간은 흐른다. 권리를 가진 인간이 늘어나는 것이 역사의 흐름이었지만 권리를 가진 인간의 욕망은 지구의 시간을 빠르게 흐르도록 만들기도 했다.

두산인문극장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사회학적, 인문학적, 예술적 상상력이 만나는 자리로 매년 주제를 정하여 그와 관련한 공연, 전시, 강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한다.

2013년 '빅 히스토리'를 시작으로 '불신시대', '예외', '모험', '갈등', '이타주의자', '아파트', '푸드', '공정', '나이, 세대, 시대'에 이어 2024년에는 '권리'를 주제로 진행한다.

그 이전의 궤를 벗어난 기후, 그 변화를 다그친 것은 역설적으로 권리를 회복한 인간들의 집단적인 욕망이었다. 인간의 권리만을 주장하다가 인간이 멸종에 이를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인간이 아닌 것에게 아무런 권리도 없는가를 질문하도록 만들었다. 동물의 권리, 식물의 권리, 나아가 인간이 만든 인공물과 사물의 권리까지 고민하면서 인간의 행동을 결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잡아 가고 있다.

권리는 투쟁의 산물이다. 권리의 확장은 나눔의 과정이고 갈등이 따르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결론은 화해와 평화여야 한다. 인간은 인간이 아닌 것들로 이 권리를 확장하는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싸움이 권리의 확장으로 결론이 나와 하는 이유는 그것이 권리를 가진 인간이 모두 함께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인류세의 인간이 비인간에 주목을 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과 권리를 나눌 때 지구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연

연강홀

인권의 미래

송지우 /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4.8

아동학대와 훈육의 경계

정익중 / 아동권리보장원장,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4.15

장애학의 관점에서 본 장애인권

김도현 / 노들장애학궁리소 연구활동가

4.22

노동은 어떻게 권리가 되었는가?

이준희 / 광운대학교 법학부 교수

4.29

인권, 다양성과 배려를 넘어서

정희진 / 여성학자, <정희진의 공부> 편집장

6.3

동물의 권리와 동물법

박주연 / 변호사,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이사

6.10

노예, 권리를 빼앗긴 자들의 투쟁

권윤경 / 서울대학교 역사학부 교수

6.17

로봇의 권리, 인간의 자리

전치형 /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

6.24

전시

두산갤러리

우리는 개처럼 밤의 깊은 어둠을 파헤칠 수 없다

참여작가. 고사리, 권동현×권세정, 박화영, 엘리 허경란

5.15-6.22

공연

Space111

더 라스트 리턴

작. 소냐 켈리 Sonya Kelly / 번역. 신혜빈 / 연출. 윤혜숙

출연. 강혜련 우범진 이송아 이유주 정대진 정승길 조두리 최서희 최은영 최희진

4.30-5.18

인정투쟁; 예술가 편

작·연출. 이연주 / 드라마터그. 김슬기

출연. 강보람 김원영 김지수 백우람 어선미 하지성

5.28-6.15

크리스천스

작. 루카스 네이스 Lucas Hnath / 번역·드라마터그. 정지수 / 연출. 민새롬

출연. 박지일 김종철 안민영 박인춘 김상보

6.25-7.13

더 라스트 리턴

The Last Return

by Sonya Kelly

시놉시스

인생의 진리를 담은 위대한 역작, 모두의 찬사를 받는 오펜하이머의 연극 <힌덴부르크로 돌아가다>가 있다. 연이은 매진 사례 속에 오늘 밤이 마지막 공연일이다. 천둥 번개와 폭우를 동반한 굿은 날씨 속에 대학교수, 회사원, 군인, 알 수 없는 가방의 주인 등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저마다 절박한 사연으로 대기 줄에 앉아 마지막 취소표를 기다린다. 과연 마지막 취소표를 가져갈 사람은 누구일까?

인물소개



작가소개

작 **소냐 켈리 Sonya Kelly**

연극

<The Last Return> <How to Keep an Alien> <The Wheelchair on My Face>
<Future Simple> <Furniture> <Once Upon a Bridge> 외

수상

2022 스코츠먼 프린지 퍼스트 어워드 <The Last Return>
2022 수전 스미스 블랙번 상 최종 후보 <The Last Return>
2022 영국 작가 조합상 베스트 희곡상 최종 후보 <Once Upon a Bridge>
2019 아일랜드 작가 조합상 베스트 신작 희곡상 <Furniture>
2018 스투어트 파커 트러스트 어워드 <Furniture>
2014 타이거 더블린 프린지 베스트 프로덕션 어워드 <How to Keep an Alien>
2012 스코츠먼 프린지 퍼스트 어워드 <The Wheelchair on My Face>



“이 유쾌한 연극은 우리 눈앞에 거울을 들고 보여준다. 비슷한 상황에서 우린 어떻게 행동할까?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가? 이런 목적을 위해서 우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This is an entertaining piece that holds up a mirror to us all as to how we would behave in a similar situation. Does the end justify the means? Just how far would you go to achieve a similar goal?

—노 모어 워크호스(No More Workhorse)

“칠흑같이 어두운 곳까지 들어가 흔적을 남기다 뜬금없는 대사나 유머가 터지는 순간 갑자기 흑 되돌아온다. 이 쉽지 않은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극을 이끌어가는 모든 이들이 훌륭히 구현한다.”

The Last Return goes to some truly dark places in which it lingers just long enough to leave a mark before being reeled back in by some absurd comment or witticism. It's a hard line to toe, but all involved maintain it excellently.

—더 위 리뷰(The Wee Review)

“이런 코미디 양식에 불기엔 너무도 사실주의적이고 충격적인 결말이 아닌가?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속에 오래 남는다. 바로 이런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아닌가?”

On first view, the ending jarred and felt out of kilter with the show, too realist and too shocking against the stylised comedy but it has lingered in my mind. Is this not the world we live in?

—프린지 리뷰(FringeReview)

“이 극은 긴장과 웃음을 훌륭하게 쌓아 올리며, 관객이 결코 예상치 못할 방향으로 흘러간다! ... 예상할 길 없는 멋진 결말을 보여준다. 강력히 추천하는 영리하고 신랄한 극.”

The play racks up the tension and laughs superbly, events taking place that the audience simply do not expect to happen! happen! ... And has the most unexpected and wonderful ending. Clever and biting, this is highly recommended.

—브리티시 시어터(British Theatre)

극장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시공간이며,
삶과 삶이 맞부딪치는 현장이다.
이것은 등장인물들이 만남과 헤어짐을 빚어내는
무대 공간만이 그렇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숨 가쁜 일상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어려운 발걸음을 힘겹게 내디딘 관객들이 자리한
객석 공간이 더욱 그러하다는 뜻이다.
어쩌면 관객들 각자만의
속 깊은 의미를 지닌 객석 공간이
보이지는 않지만 더욱더 생생한
삶의 현장이지 않을까.

관객들은 오늘 이 시간에
바로 객석의 의자 하나를 자리 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선택을 하였는지 모른다.
오랜 기다림과 짧은 설렘이 반복되기도 하고,
때론 생산과 소비에 따른 권리와 책임이 오가며
적잖은 방향을 했을지도 모른다.
심지어 노동과 휴식 사이에서 여전히
갈팡질팡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오랫동안 준비해 온 연극이 막이 오르기 전부터
이미 연극의 막을 올리는 주인공은 바로 관객들이다.
연극을 가능하게 만드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인
'관객'이 입장하는 순간,
배우와 스태프는 분장실 모니터 앞에서 숨을 죽이며
오늘 등장하는 관객들을 맞이한다.

'오늘 관객들은 각자 어떤 삶의 이야기가 숨어 있는 사람들일까?'

관객은 각자 자신의 삶을 바탕으로
무대 위 등장인물의 삶을 들여다볼 것이다.
오늘 연극을 바라보는 관객들이 누구인지에 따라
연극은 매일매일 달라진다.
이제 배우와 스태프가 준비한 등장인물의 삶은
무대에서 객석으로 넘어간다.
관객과 배우의 만남은
관객의 삶과 등장인물의 삶이 맞부딪치면서
드라마의 시공간은 관객의 시공간으로 확장되고
극장은 데드라인이 정해진 일시적인 커뮤니티로 생성된다.

하지만 아직 객석에 도착하지 못한
사람과 삶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어쩌면 아직 객석에 도착하지 못했기에
더욱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사람과 삶이 있다.
<더 라스트 리턴>은 아직 객석까지 안내 받지 못한 채,
로비 공간에서 대기 중인 사람과 삶에 주목한다.
그 가운데에는
대열의 선두에 서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데 골몰하는 사람이 있고,
대열의 선두에 서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는 사람이 있고,
대열에서 탈락하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고군분투하는 사람이 있고,
대열에서 부재함으로써 오히려 존재를 증명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다.

무대 밖에서 무대를 시작하는 <더 라스트 리턴>은 극장 밖에서 극장을 꿈꾼다.
관객 가운데에서 등장인물을 발견하는 <더 라스트 리턴>은 로비 공간에 숨겨진 진실을 찾는다.
오늘 이 로비 공간에도 수많은 삶과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등장하고 있다.
연극은 그렇게 온전히 관객의 몫으로 완성되어 간다.

“오, 인류여!”

1937년 5월 6일, 독일의 비행 여객선 힌덴부르크호가 미국 해군 항공기지 상공에서 폭발하여 화재로 추락합니다. 당시 힌덴부르크호의 착륙을 취재하러 현장에 나가 있던 기자 허버트 모리슨의 절규는 대참사를 맞닥뜨린 인류의 허망함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 <힌덴부르크로 돌아가다>의 취소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취소표를 얻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사람들. 연극 하나 가지고 이럴 일이야? 싶겠지만, 사실 우리 또한 내 자리 하나 지키기 위해 매일 참사를 벌이지 않나요? 줄을 서서 암전히 기다리다가도 발톱을 드러내게 되는 순간이, 나의 품위와 인간의 존엄함은 어디로 갔나 싶은 순간이 있지 않나요?

유럽의 사백 년 역사를 줄줄 꿰고 있지 않아도, 출퇴근 만원 지하철에서 내 바로 앞자리를 비집고 앉은 암체 인간을 그대로 들어서 던져버리고 싶은 적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웃을 수 있는 연극입니다. 많이 웃고 오래 생각해 주세요.

번역 신혜빈

희곡

<이게 마지막이야 This Will Be the Last> <스팅 인 어 룸 Sitting in a Room> 외



‘대기 줄’에 선다는 것은
끝난 줄 알았는데 나에게 다시 기회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망에서 희망을 보는 것이지요.

그런데 나와 같은 희망을 품은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희망은 다시 불안이 되고, 절망이 되고, 분노가 됩니다.
한정된 기회를 놓고 그 누구도, 한 치도 물러설 수 없습니다.

공연 티켓 한 장 갖고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독 지치고 피곤한 날, 버스든 지하철이든 빈자리가 딱 하나 남아 있다면 어떨까요?
구명보트의 마지막 한 자리라면요?
대학 입시에서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마지막 한 자리,
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한 마지막 한 자리,
사원증을 목에 걸 수 있는 단 한 자리...

우리 각자 자기 현실에 더 와 닿는 마지막 한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물러설 수 있습니까? 미소를 잃지 않고 기꺼이 양보할 수 있나요?

언제나 그렇듯, 우리는 “그래서 마지막 취소표를 가져가는 사람이 누구일지” 궁금하겠지만,
어쩌면 누가 마지막 취소표를 가져갈지,
누가 가져가야 마땅한지 등은 소용이 없는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줄은 누가, 왜 세우는 것인가,
왜 대기 줄에 선 사람들끼리 아웅다웅 다투고 있는 것인가,
왜 늘 자리는 부족한 것인가,
마지막 남은 한 자리에 왜 이토록 목을 매야만 하는 것인가
우리가 정말로 궁금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 자리 하나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자기 자리 하나 지키는 게 이렇게까지 힘들 일인지
공연을 통해 생각과 질문을 나누고 싶습니다.
더불어, 자기 자리가 없어서 뺄뺄하게 서 있는 사람,
줄에 서지도 못하는 사람은 없는지 두리번거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연출 윤혜숙

래빗홀씨어터 대표

연극

<정희정><세컨드 찬스><편입생><당신을 초대합니다><모자_숨_스물다섯><춤의 국가>
<마른대지><우리는 이 도시에 함께 도착했다><숨그네><보팔, Bhopal(1984-)>
<아리아 다 카포> 외

수상

2020 두산연강예술상 '공연부문'

2020 한국연극평론가협회 선정 '올해의 연극 베스트 3' <마른대지>

2020 월간 한국연극 선정 '공연 베스트 7' <마른대지>



하우스 & 티켓 매니저

- 취소표 대기가 가장 치열했던 공연에 관한 기억

“취소표 대기는 항상 치열합니다.”

“내부 스태프가 모니터를 위해 예약한 건의 취소표가 생기더라도 자리 배정이나 안내가 어려워 돌려 보내는 경우가 더 많아요.”
“취소표가 소량일 경우 한 명씩 안내 후 관람하기도 합니다.”

- 비가 오는 날 극장은

“비가 올 때 가장 먼저 1층에 카펫이 깔려 있는지, 우산함이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극장 바닥 물기를 수시로 확인하고 닦아 놓습니다.”

- '극장'이란

“로비, 하우스, 무대 이렇게 세 공간이 있어야 '극장'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각 파트별로 담당이 정해져 있고 그 자리에서 모두가 역할을 다하는 것이 '극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객

- 취소표 찾기

“티켓팅에 실패했을 경우 새벽에 취소표를 찾아본다든지, 예매 사이트에 자주 들어가서 표가 있는지 봅니다.”

- 로비에서

“저녁 공연 때는 일부러 저녁을 먹지 않습니다. 공복으로 가면 좀 더 공연에 집중할 수 있고, 낮 공연 때도 끼니를 챙기기보다 커피를 마십니다.”
“공연 20분 전, 10분 전쯤 극장에 도착합니다. 오래 앉아있는 걸 힘들어해서 극장에 바로 입장할 수 있게 최대한 나중에 옵니다.”

“비지정석 공연엔 40분 전에 도착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극장에 빨리 도착해서 텅 빈 극장 로비에서 혼자 책을 읽다 고개를 들었을 때 어느새 사람들이 극장 로비에 꽉 채워져 있는 설렘을 느끼곤 합니다.”

- 비가 오는 날

“비가 와서 공연을 취소한 적은 없습니다. 반대로 오늘 비가 오니까 취소표가 많겠지? 하고 갖지만 전석이 가득 차 있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공연 취소 알림이 오지 않는 한 비가 와도 공연을 보러 갑니다. 어느 장마 때 쏟아지는 비를 뚫고 도착했다는 뿌듯함이 들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 극장에 가면 혼자서 보러 오신 분들은 많지만 두좌석씩 비어 있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 극장 로비에서 줄 서기 일화

“통로를 만들어 놓고 줄을 서고 있는데 제가 뒤에 줄이 있는 줄 모르고 새치기할 뻔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뒤에서 제가 떠나지 않으면 곧 쏘아붙이실 것 같은 눈빛으로 저를 보시더라고요. 바로 상황파악을 하고 뒤로 갔습니다.”
“비지정석 공연에서 줄을 서고 있는데 누군가 자연스럽게 제 앞으로 새치기를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말을 못하는 편이라 말하지 못했어요.”
“MD 제품을 구매하려고 줄을 서고 있는데 바로 제 앞의 분이 제가 사고 싶었던 MD제품을 구매해서서 제 바로 앞에서 제품이 품절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 정말 보고 싶은 공연을 누군가에게 양보할 수 있다면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와서 사정해도 주지 않을 것 같아요, 이 공연을 못 보면 죽는 게 아니고서야...!”
“처음 보는 공연이라면 양보가 어려울 것 같아요”

패널

이희정 김지은 권지은 유지민 이준 홍연재 김다봄
김미소 심윤화 이현일 최태영

“성인이 아닌 어린 학생들, 저보다 나이가 어린 분들이라면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으니 표를 양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많은 사람이 연극의 매력을 느꼈음 해서요.”

“이 공연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이 작품이 자신의 첫 연극이라면 양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작자 소감

강혜련(배우): 실제로 극장에서 일하는 분들과 극장을 찾아오는 분들의 이야기가 실감 나고 생생하여 재미있었습니다. 어디서든 들을 수 없는 에피소드들을 듣게 되어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대화를 하면 할수록 이야기들이 더 많아져서 끝나는 시간이 왔을 때 시간이 부족한 것처럼 느껴져 너무 아쉬웠습니다.

김성령(조연출): 극장을 이루는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들이 뜻깊었습니다. 공연 시작 전 미리 오셔서 로비에 앉아 있다 보면 어느새 극장 로비에 많은 사람이 차 있는 걸 보는 게 설렘이라는 관객분의 말을 듣고 극장에 모이는 다양한 사람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작품 속 다양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범진(배우): 공연을 만드는 다른 면의 시선들을 듣게 되어 좋았습니다.

윤혜숙(연출): 나는 어떤 경우에 내 티켓을 양보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웬만해선 그럴 일이 없을 것 같다고 답변해 주시고, 아! 그래도 연극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청소년이라면 한번 고려를... 이렇게 덧붙여 주셨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송아(배우): 티켓 하나로 여러 고민될 수 있는 게 제 일상과는 좀 떨어져 있지만 아주 흥미롭고 소설 안에 있는 이야기 같다는 생각 들었어요.

이유주(배우): 내가 잃어버렸던 권리, 그리고 내가 침해했을 수 있을 권리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하나 아렌트’의 삶에 대해 잘 알게 되어서 너무 반가웠고 관객분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눴던 날은 오래도록 잊지 못할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정대진(배우): 연극과 극장에 대한 그분들의 애정이 많이 느껴졌어요. 작품 속 인물들의 티켓에 대한 감각이 어느 정도일지 와닿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승길(배우): 첫 만남이 늘 그러하듯 낯설고 어색했지만 왠지 느낌이 좋았습니다. 좋은 느낌이 늘 그러하듯 딱히 근거는 없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담겨있는 모두의 이야기로 읽혀지길 바랍니다.

조두리(배우): 배우 입장에서 매우 친숙한 분야라서 어떤 새로운 얘기가 있을까 궁금했었어요. 확실히 경험이 더 풍부하다는 건, 전문적이란 건 깊이가 다르단 걸 깨달았습니다. 재밌는 얘기들이 많았어요, 개인의 루틴에 관한 얘기들. 남에게 피해를 끼치기 싫다는 배려에서 나온 행동을 통해 배운 바도 많고 경험 자체가 신선했습니다.

최희진(배우): 무대 바깥의 이야기를 듣는 게 참 좋았어요.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많은 것들을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특히나 한 공간에서 얼굴 보고 얘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강혜련 대표소 직원 역

연극

<덜메이드> <정희정> <번아웃에 관한 농담> <세컨드 찬스> <춤의 국가>

<마른 대지> <오문오방:무릉도O> <우리는 이 도시에 함께 도착했다>

<남쪽나라로> <보팔, 1984~> <오문오방: 서울-유토피아>

<소설가 구보씨와 경성사람들> 외



우범진
군인역

연극
<조조와 양수> <당신에게 닿는 길> <오프리밋> <비타민P>
<몇 가지 방식의 대화들> 외



이송아 NI SIYA

분홍 두건 여자 역

연극

<안나전> <덜메이드> <공연-파란색하늘아래> <추락2> <사라진 나라에서 영영 떠돌다> <땡> <남자의 기원>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 <달쁜 밤 한 길로> <잔인하게, 부드럽게> 외

퍼포먼스

<이곳에 살기 위하여> <파란색하늘아래> <하늘이 나를 버렸을 때 나는 불을 피웠다> 외

영화

<아줌마> 외



이유주
중창단 역

연극

<정희정> 외

드라마

<나의 해피엔드> <가슴이 뚫다> <안나> 외

영화

<만남의 집> 외

수상

2023 서울예술상 연극부문 우수상 <정희정>



정대진 중창단 역

연극

<원더랜드> <영원한 평화> <톡> <아웃 오브 러브> <마른대지>
<버스정류장> <망토> <노틀담 드 파리> <복덕방> <로베르토 주코>
<겨울선인장> <닭집에 갔었다> 외



정승길

신문 보는 남자 역

연극

<카사노바> <오솔로> <선을 넘는 자들> <파워> <빛의 제국>
<프라메이드> <공장> <에이미> <아버지와 나와 홍매와> <목란언니>
<푸르른 날에> <전명출 평전> 외

드라마

<흔레대첩> <닭강정> <대행사>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
<멜로가 체질> 외

영화

<말이야 바른 말이지> <드림> <낮 아웃> <1987> <은하해방전선>
<후회하지 않아> 외

수상

제5회 대한민국 연극대상 남자연기상



조두리 중창단 역

연극

<복희씨> <베니스의 상인> <예르마> <사요가 말하길> <빨간시>
<비명자들2> <바닷물맛 여행> <내일은 다산왕> 외

드라마

<귀피를 흘리는 여자> 외

영화

<당신의 부탁> <서울> 외



최서희
여자애 역

뮤지컬
<수박수영장>

수상

2023 경향뮤지컬콩쿨 초중고 단체부문 우수상

2022 고양국제 청소년 연기·뮤지컬 부문 최우수상



최은영
여자애 역

뮤지컬
<내 마음은 무지> <할란카운티> <마틸다> <빌리 엘리어트>



최희진 우산 든 여자 역

연극

<키리에> <너의 왼손이 나의 왼손과 그의 왼손을 잡을 때> <노스체>
<잔인하게 부드럽게> <슈미> <김이박이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김이박이
고등학교에 입학한다> 외

드라마

<재벌×형사> <혼례대첩> <소방서 옆 경찰서> <더 패블러스> 외

영화

<시민덕희> <다음 소희> <타인의 삶> <정인> <절해고도>
<나의피투성이 연인> 외



TICKET BOX

현장구매

DOOSAN ART CENTER





연습일지

김성령 조연출

✓ 연습일지-테이블

'줄 서기'에 대한 일화 나누기

- 지하철에 서서 내 자리를 기다릴 때. 내 옆에 선 사람은 얼마 서지도 않았는데 나보다 먼저 앉는 것. 권리를 주장하기가 애매해지는 순간.
- 화장실 줄이 길 때 갑자기 내 앞에서 '야 빨리 와!' 새치기를 당해본 적.
- 길거리 호떡 맛집 앞에서 줄을 설 때 내 앞 사람이 호떡을 갑자기 10개나 시켜버릴 때의 곤란함.
- 입석 제한이 있는 광역버스를 탈 때, 좌석이 얼마 남지 않은 버스를 두고 갑자기 나도 모르게 만들어진 줄 때문에 버스를 놓쳤던 경험.
- '한정된' 자리가 권리를 주장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 달리는 도로 위, 정체 구간에 누군가 내 앞에 끼어들 때.
- 꼭 와서 기다려야 하는 주차 등록 시스템 때문에 하염없이 기다렸던 적.

의자 뺏기 게임 1

1. 의자 하나를 두고 두 사람이 음악에 맞춰 의자 주위를 돈다.
2. 진행자가 스톱을 외치면 둘 중 한 사람이 의자에 재빨리 앉는다.
3. 의자에 앉은 사람이 최종 승리.

의자 뺏기 게임 2

1. 의자 하나를 두고 두 사람이 서 있다.
2. 자리가 있는 사람, 자리가 없는 사람으로 역할을 나눈다.
3. 물리적인 힘 없이 자리가 없는 사람은 의자에 차지하기 위해 방법을 모색해 본다.
4. 자리가 있는 사람이 설득당하고 일어나 자리가 없는 사람이 자리를 차지하면 승리, 그렇지 않을 경우 실패.

“줄 서기 일화 나눔, 의자 뺏기 게임들을 하면서 대본으로 읽었을 때 느껴지지 않은 감각들을 찾아보기”

줄 서기 일화를 나누면서 줄 말기, 줄 서는 중 눈치보기, 새치기 당했을 때의 일화 등을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줄 서기 심상을 공유했다. 물리적으로 의자 뺏기, 물리적인 힘 없이 의자 뺏기 게임에서는 의자(자리)를 지키고, 뺏으며 자리에 대한 본능적이고 직관적인 감각들을 발견하는 시간이었다.

‘권리’에 대해 글쓰기, 책 읽기

“‘권리’에 대해서 떠오르는 생각, 개인 경험에서 비추어본 생각, 책/영화/드라마 등으로 비추어 본 생각 등 권리에 대한 짚막한 글 써보기”

권리: 어떤 일을 행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
공권, 사권, 사회권이 있다.

- 권리란 힘인가? 자격인가? 공동체인가? 누가 주는 것인가? 권리가 뭐지?
- 권리는 관계와 사회 속에서 성립된다. 그 권리들은 서로 부딪히고 협약된다.
- ‘성원이 될 권리’, 소수민족/난민/이민자/노동자들을 위한 권리.
- 일상생활에서의 권리와 관련된 규칙들.

권리에 대한 짧고 긴 생각들을 나누며 ‘권리’라는 주제에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보고 결국 우리 작품 안에서 사고할 수 있는 권리의 여러 모습, 여러 정체성을 서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알아가고 앞으로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 연습일지-씬스케치부터 공연까지

<더 라스트 리턴>에는 대본에 나와 있지 않은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한다.

‘중창단’이라는 역할을 맡은 세 명의 배우는 극 중에서 유령가(환희의 송가)를 부르는 중창단으로, 극장 청소 노동자로, 극장 하우스 직원으로 작품 곳곳에 등장한다.

대기 줄에서 취소표를 기다리는 다양한 인간 군상을 가진 인물들의 이야기를 담고자 각 인물 독백마다 새로운 시도들을 했다.

중창단 세 명의 배우분들과 함께 만들거나, 음악을 넣어 보거나, 청소 물품을 원래 용도가 아닌 새로운 용도로 활용하여 장면들을 만들었다.

그렇게 씬스케치에서는 인물 개개인과 인물끼리 서로 얽혀 가는 관계성, 함께하는 중창단까지 다양한 시도들을 통해 장면을 만들었다.

씬스케치 작업 이후로는 그동안 만들었던 장면들을 붙여보면서 극장 로비라는 한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모습들을 발견하고 새롭게 시도하며 다듬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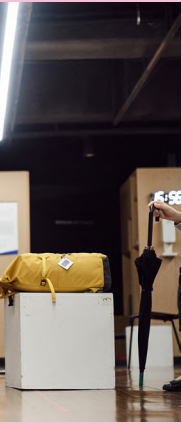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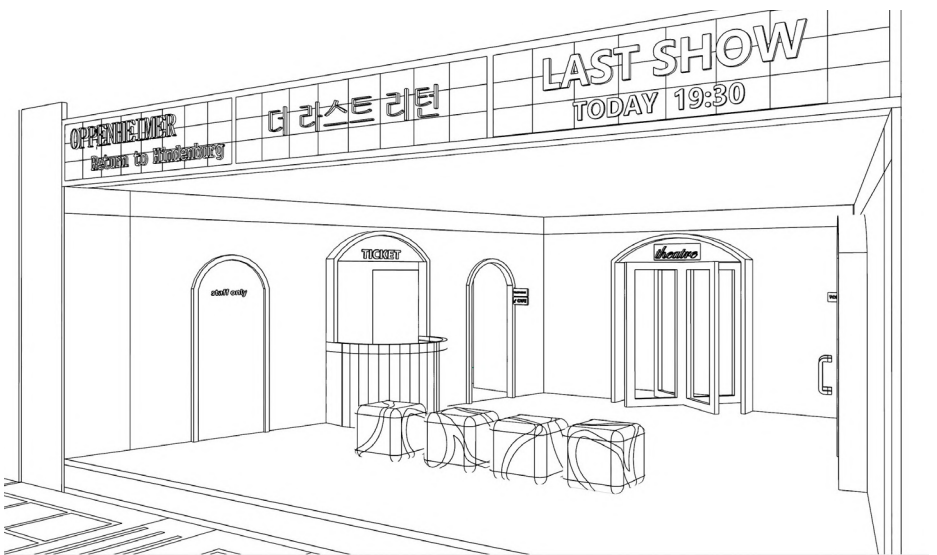














<더 라스트 리턴>에서 음악은 크게 두 가지의 즐거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인물들 말에 조력하는 역할로서의 음악입니다. 극에서 각각의 인물들은 소통을 위한 주장이 아닌 자신들의 강력하고 이기적인 이유를 독백처럼 쏟아냅니다. 그 말들은 병렬로 연결되지만 서로 뭉치고 쌓여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때 음악은 그 말들에 힘을 실어줍니다. 우습고 어이없는 간절함을 돕습니다. 극과 거리를 두어 사유를 유도하거나 막과 막 사이 호흡을 만들어 내기보다 배우들이 만들어 내는 순간의 리듬에 딱 붙어 발을 맞춥니다.

또 하나, 윤희숙 연출이 탄생시킨 '중창단'의 음악이 있습니다. 중창단이라는 역할의 이름으로 노래 부르고 다양한 캐릭터로 변신합니다. 이것은 음악감독에게 흥미로운 지점이지만 어려운 난제였고 고민의 내용이었습니다. 음악으로 인물을 설명하는 것, 충실하게 표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보가 많지 않고 배경이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게다가 연극 공연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은 언제나 조심스럽고 예민한 부분입니다. 노래의 개수나 길이와 상관없이, 아니 오히려 단 한 곡, 한 소절의 노래일 때 고민은 더 커지는 듯합니다. 이러한 설정과 상황에서 치열한 자리싸움의 줄에 서있지 않은 중창단에게 어떤 성격의 노래를 입혀야 하는지가 함께 풀어야 할 주요 과제였습니다.

먼저 현 구성원들의 소리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균형을 맞추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자주 만나 많은 것을 시도해 보고 합을 맞추었습니다. 넘치게, 뼈뚫이게, 왜곡되게도 해보았고 다시 지우고 버리고를 반복하면서 단순하고 쉬운 것을 남겼습니다. 명료한 하나만 남겨야 극의 마지막과 합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 그 방향으로 편곡을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보탬 내용이 있습니다.

본 프로덕션은 중년, 청년, 아동, 대한민국 이외의 국적인, 청소년을 둔 엄마, 갓난아이의 엄마 등 구성원이 다양합니다. 더불어 언제나 활기차고 즐겁습니다. 응원과 배려가 넘칩니다. 소위 연습 분위기라고 말하는 프로덕션의 성격을 노래에 한 스펀 넣고 싶어졌습니다. 테크닉으로 무장한

〈더 라스트 리턴〉
유럽가 - 뽀뽀뽀ver.

Arr. 박소연

con moto

Chorus

뽀 뽀 뽀 뽀 부 부 부 부 뽀 뽀 뽀 뽀 뽀 부

Ch.

뽀 뽀 뽀 뽀 부 부 부 부 뽀 뽀 뽀 뽀 부 뽀

Ch.

부 뽀 부 뽀 부 뽀 뽀 뽀 부

Ch.

뽀 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뽀

Fine
D.S.

가창력보다 다양함과 경쾌함이 매력적인 무기가 될 수 있음을 믿었고 노래에
담아 보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중창단의 노래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의
배우들, 연극 <더 라스트 리턴>의 원조 중창단의 매력과 노력으로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감사함을 전합니다.

음악적 재능으로 무장한 윤혜숙 연출과의 작업은 언제나 즐겁습니다. 그녀를
만나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혼자 고군분투하는 작업시간은
어김없이 괴롭지만 연습 현장에 가는 즐거움을 선사해 주는 연출에게 애정을
표합니다. 여기서 (굳이) 이러면 안 되겠으나 지면을 허락받은 저의 권리를
누리겠습니다. 하하하.

연극에서 음향이 담당하고 있는 주요 과제는 장에 따라 변화하는 시간과 공간을 최대한 관객들에게 납득시키는 일이다. 해설과 지문에 적혀있는 공간적 배경과 시간적 배경을 꼼꼼하게 파악하고 조사하여 자연스럽게 소리 요소를 배치하고 발라서 세트를 세운다.

그런데 연극 <더 라스트 리턴>은 한 공간 안에서 등장인물만 추가될 뿐, 이렇다 할 시간적, 공간적 요소의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음향 리스트가 단출해질 것 같아서 안도와 초조의 양가감정이 들었지만 대본을 읽게 되면서 실마리를 찾았고 그것은 마치 당겨놓은 실 사이 숨어있던 주름처럼 펼쳐졌다.

티켓을 가져야만 하는 인물들의 굴곡진 인생 역경의 고백이 시작되면 시공간을 초월하기 시작하여 그 이야기를 촉발시킬 수 있는 사운드들이 산소같이 분포해야 했다. 처음 필요하다고 파악했던 음향 소스들은 사실은 빙산의 일각이었다. 막상 장면 작업을 시작하니 점점 '쫂민'하듯 몰입감이 더해지고 밀도가 진해졌다. '이것도 하자, 저것도 해보자' 하며 신이 나서 결국 어떤 장면은 연습실에서 찍어온 영상을 깔아 놓고 장면에 빈틈이 없도록 작업을 하기도 했다.

배우의 대사와 감정의 흐름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신경 쓰면서 음향이 누울 자리를 가늠했다. 덕분에 게임 음향, 혹은 애니메이션 음향을 만드는 기분으로 마음껏 듬뿍 사운드를 심었다.

‘주요 공간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과 ‘공간을 믿음직하게 쌓는다’는 문제는 별개다. 이 작품을 맡고서 그동안 별생각 없이 지나쳤던 극장의 로비라는 공간을 유심히 관찰하게 되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 층고 높은 동네 시민회관의 대극장 로비부터 학교의 예술극장, 멀리 가지 않고 바로 요 앞 극장 문을 열고 마주칠 Space111, 연강홀.

그곳에서 들릴 법한 소리들, 매표소의 풍경, 사람들이 움직이는 속도를 떠올려본다. 그리고 매일 밤 매진인 화제의 명품연극 ‘힌덴부르크로 돌아가다’를 상영하고 있을 영국의 극장을 생각해 본다.

그곳은 오래됐지만 잘 관리된,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있는 극장일 것이다.

로비 밖으로 나가는 회전문을 지나면 도로로 내려가는 대리석 계단이 있을 것 같다. 인물이 들어오느라 잠시 문이 열리면 밖의 세찬 빛소리와 함께 젖은 도로를 지나는 도심의 차 소리가 타고 들어올 것이다.

앉을 의자가 많이 마련되지 않은 로비는 공연 시간이 한참 남은 때엔 아무도 없어 대개 조용할 것이고, 전통과 격식을 갖춘, 교육을 받은 직원들이 잘 관리하기 때문에 청결할 것이다. 그곳의 층고와 바닥재들을 상상한다.

이렇게 소리 지도를 그리고 난 다음에는 머릿속에서 들리는 소리를 따라 작업한다. 그곳에서 들릴 예비 종소리, 전화 벨소리, 심지어 총소리까지.

워킹 룩 여자 - 최희진



신문 보는 남자 - 정승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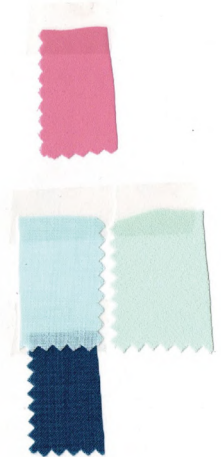
군인 남자 - 우범진



매포소 직원 - 강혜연



봄 들판 여자 - 이송아



중학생 (3명 유형)

이유주



정대인



조두리



두산인문극장 2024: 권리

더 라스트 리턴

The Last Return

by Sonya Kelly

4.30-5.18

두산아트센터 Space111

기획·제작 두산아트센터

작 소냐 켈리(Sonya Kelly)

번역 신혜빈

연출 윤혜숙

출연 강혜련 우범진 이송아 이유주 정대진 정승길
조두리 최서희 최은영 최희진

조연출 김성령

무대감독 김상엽

무대조감독 박승완

무대/무대모형디자인 유소양

무대제작 에스태이지(s_TAGe, 대표: 이윤중)

제작팀장 정우상

제작팀 김세진 권오준 이종민 차승호 정우근 임대환
정재현 박호준 이승윤

작화팀 작화공간

작화팀장 이남련

작화팀 박지원 이재형 김유진 김용선 이정민

조명디자인 성미림

조명어시스턴트 홍유진

조명오퍼레이터 김서라

조명팀 김은빈 윤혜린 서승희 유보민 나홍선 김소현
정우원 이상혁

음악감독 박소연

음향디자인 임서진

음향기술감독 이현석

음향오퍼레이터 박산결

음향팀 박민희 조장호

의상디자인 김미나

의상팀 이지혜

의상제작 코스튬스토리

분장·소품디자인 장경숙

분장팀 정혜민

소품팀 이효진

무술감독 이국호

자막해설디자인 이청

자막해설오퍼레이터 이수림

접근성매니저 정혜민

관객과의 대화 문자통역 소리를빛다 이시은



그래픽디자인 포인터스(Pointers)

SNS콘텐츠제작 필루미에르

사진기록(프로필·정물·설정) 만나사진관

사진기록(연습·공연) 서울사진관

영상기록(연습) 필루미에르

영상기록(공연) 헤즈스튜디오

인쇄 으뜸프로세스

사전 워크숍 패널 이희정 김지은 권지은 유지민 이준

홍연재 김다봄 김미소 심윤화 이현일 최태영

협력 이화희곡번역연구회 SPOKEN

두산아트센터

센터장 강석란

공연기획 김요안 남윤일 신가는 이정민

전시기획 장혜정 유진영 강하람 박성은

교육기획 박찬중 정다운 이보라 박세연

홍보마케팅 강소라 강소정 이지혜 김예리

티켓 이희정 김지은

사무 고해민

기술 신승욱

음향 류호성 전경미

조명 황동철 왕은지

무대 강현후 박소연

하우스 권지은 유지민

하우스 안내원

이준 최다연 (헤드 어시스턴트 매니저)

김재원 권도이 금다애 기나연 김진용 김채연 나현석

서유정 서장훈 송해원 윤아진 이담빈 이민주 이상규

이수진 이재민 이재이 이정은 전윤희 정민경 지해원

허수지 홍연재

DOOSAN Gallery International Residency Open Call

두산갤러리 해외 레지던시 공모

두산갤러리 해외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창작자들의 확장된 경험과 활동을 지원합니다.
선정된 창작자에게는 뉴욕 ISCP 레지던시 입주와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접수기간 2024.5.6.(월)~5.13.(월) 오후 6시까지

지원사항 ISCP 프로그램 참가비 (개인 스튜디오 제공)
왕복 항공료
레지던시 기간 중 숙박비, 활동비

대상 작가, 큐레이터

공통 40세 이하, 한국 국적, 영어 의사소통 가능
작가 개인전 2회 이상 (학위 청구전 제외)
큐레이터 최소 3년 이상의 활동 경력과
1회 이상의 개인 기획 경력 (소속 여부 무관)

접수 방법 및 문의 두산아트센터 홈페이지 공모 안내 확인
www.doosanartcenter.com



두산아트센터 공모 안내 2024

공동기획

두산아트센터는
동시대를 이야기하는
다양한 작품을
지원합니다.
공동기획 작품은
Space111 무료 대관 및
소정의 공연제작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모기간

5월 6일(월) - 6월 5일(수)

지원내용

- 공연제작비(작품당 1천만 원)
- 공연장(Space111), 부대장비
- 하우스 운영 인력(티켓 수표, 현장관객 응대)
- 티켓수익 전액(창작단체에 귀속)

* 선정단체 부담

- 제작/홍보마케팅/티켓/공연 운영
- 참여 배우/스태프 공연자 상해보험 및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공연기간

2025년 4월, 7~8월(2개 기간 중 택 1)

대상

두산아트센터와 공동기획으로 Space111에서
공연을 희망하는 작품

- 자격/장르 제한 없음
- 최소 10회차 이상 가능한 작품
- 재공연 작품 가능

작품수

2편

심사과정

- 1차: 서류심사
- 2차: 개별 인터뷰

제출서류

- 필수: 공모신청서(지정양식)
- 선택: 공연소개 자료

접수방법

두산아트센터 홈페이지에서 접수



두산아트센터 홈페이지

* 자세한 사항은 두산아트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두산아트센터 2024

두산은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고 지원합니다

공연

연강홀 Yonkang Hall

뮤지컬 **스토리오브마이라이프** 2023.11.30-2024.2.18

연극 **엠.버터플라이** 3.16-5.12

뮤지컬 **베어 더 뮤지컬** 5.22-8.25

뮤지컬 **리지** 9.13-12.1

뮤지컬 **고스트 베이커리** 2024.12.12-2025.2.23

Space111

두산아트랩 공연 2024

무용 **메타발레: 비(非)-코렐리아 선언** 1.11-1.13

연극 **할머니의 언어사전** 1.18-1.20

연극·신체극 **산호초를 그린 자국** 1.25-1.27

연극 **명태 말고 영태** 2.1-2.3

다원 **메이크 홀, 스위트 홀** 3.7-3.9

연극 **사회적 청소년기를 바탕으로 한 창작과정이**

인형작업자의 창작과정에 미치는 영향: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의 '타자'를 중심으로 3.14-3.16

연극 **문병재 유머코드에 관한 사적인 보고서** 3.21-3.23

연극 **미아 미아 미아** 3.28-3.30

두산인문극장 2024: 권리

연극 **더 라스트 리턴** 4.30-5.18

연극 **인정투쟁: 예술가 편** 5.28-6.15

연극 **크리스천스** 6.25-7.13

공동기획

연극 **케이맨즈 랩소디** 4.6-4.21

연극 **당연한 바깥** 7.20-8.4

DAC Artist

연극 **신진호 신작** 10.1-10.19

연극 **배해를 신작** 10.29-11.16

두산연강예술상 수상자

연극 **이홍도 신작** 11.26-12.14

전시

두산갤러리 DOOSAN Gallery

두산아트랩 전시 2024 1.17-2.24

권현빈 개인전 **We Go** 3.20-4.20

두산인문극장 기획전

우리는 개처럼 밤의 깊은 어둠을

파헤칠 수 없다 5.15-6.22

두산 큐레이터 워크숍 기획전 7.10-8.10

두산연강예술상 수상자 유신애 개인전 9.4-10.12

한나 허 개인전 11.13-12.21

교육

두산인문극장: 강연 4.8-6.24

두산아트스쿨: 미술 4.18-5.9, 10-11

두산아트스쿨: 공연 8.20-8.23

두산아트스쿨: 창작 워크숍 6-8, 10-12

두산아트센터 투어 **연중**

스튜디오 프로그램 **연중**

공모

공연

DAC Artist 1.8-1.25

공동기획 5.6-6.5

두산아트랩 공연 6.10-7.10

미술

두산 큐레이터 워크숍 1.30-2.9

두산갤러리 해외 레지던시 5.6-5.13

두산아트랩 전시 7.1-7.12

두산아트센터 02.708.5001 doosanartcenter.com

두산갤러리 02.708.5050 doosangallery.com

공연, 전시, 교육 및 공모 프로그램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